

황현식 “AI에 2~3兆 투자… 통신역할 확장”

(LGU+ CEO)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

“고객에 실질적 가치 제공 중요” 추구하는 ‘AX 컴퍼니’ 비전 제시 보이는 전화, 보이스피싱 감지 기능 ‘1년 내 사용자 100만명’ 목표 구글과 기획단계부터 협력 중

LG유플러스가 고객 경험을 혁신할 새로운 인공지능(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출시하며 ‘AI 전환(AI) 컴퍼니’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7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열린 LG유플러스 기자간담회에서 황현식 LG유플러스 CEO는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AX 서비스 전략을 공개하며 고객 중심의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 최적화된 AI 솔루션 제공

황 CEO는 “AI 기술 자체보다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LG유플러스가 추구하는 ‘AX컴퍼니’ 비전을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B2B와 B2C 두 가지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AX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B2B 부문에서는 ‘올인AI(All in AI)’ 전략을 통해 기업 고객에게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B2C 부문에서는 익시오를 중심으로 고



LG유플러스의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가 제공하는 온디바이스 기반 기능.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7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AX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객 맞춤형 기능을 지원하는 ‘퍼스널 AI 에이전트(Personal AI Agent)’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하며

AI 분야에 2~3조원을 투자해 통신의 역할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 AI ‘익시오’

이날 LG유플러스는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의 공식 출시도 알렸다. 익시오는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AI 통화 서비스로, ▲전화 대신 받기 ▲보이는 전화 ▲실시간 보이스피싱 감지 ▲통화 녹음 및 요약 기능을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제공한다.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내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처리돼 보안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AI가 전화를 대신 받아 대화를 이어가거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화면에 보여주는 ‘보이는 전화’ 기능 등은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은 AI가 통화 내용을 문장 단위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화를 종료하도록 경고한다.

이상엽 CTO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해 확보한 신고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켰다”면서 “현재 98~99%의 탐지 정확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가짜 음성까지 탐지하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익시오의 단기 목표로 ‘1년 내 사용자 100만 명 확보’를 설정했다. 현재는 아이폰 14 이상 버전에서만 익시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 삼성전자 갤럭시 신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안드로이드 버전도 선보이고 적용 대상 단말기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LG유플러스는 LG전자와 협업해 홈 AI 에이전트까지 익시오의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홈 에이전트는 구글과 기획 단계부터 협력 중이다.

황 CEO는 “통신의 역할이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AI로 일상에서 새로운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익시오와 같은 차별화된 AI서비스가 고객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모든 일상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SKB

‘B tv 케이블’ 고객에 고품질 사용경험 제공

SK브로드밴드는 ‘Btv 케이블’ 고객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 사용자 환경(UI)·사용자 경험(UX) 전면 개편과 함께 영상 품질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B tv 케이블’ 고객도 ‘B tv’의 고품질 사용자 경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B tv 케이블’과 ‘B tv’ 서비스 간 UI/UX 요소를 통일함으로써 고객에게 일관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B tv 케이블’의 서비스 화면을 텍스트와 메뉴 위주에서 이미지와 영상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고객이 직관적으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UI·UX 환경을 서비스한다.

주문형 비디오(VOD) 콘텐츠를 블록 형태로 노출시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메뉴 탐색 구조도 고도화한다. 즐겨리나 타이틀, 상세 보기 버튼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추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중기부

중소 유공자 발굴 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8일부터 오는 12월13일까지 받는다.

중소기업 유공자 정부포상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열리는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인 대회는 1990년 제2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의 개막행사로 최초 개최된 이래 중소기업계 최대 규모의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을 시행해 왔다.

포상 분야는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4개 부문이다. 심사를 통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중기부장관 표창 등 380여 점 내외로 수여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카카오, 3분기 영업이익 1305억

(전년비 5% ↑)

매출액, 4% 감소한 1조9214억 콘텐츠 매출 14% ↓… ‘비핵심 사업 정리’ 내년 신규 AI 서비스 ‘카나나’ 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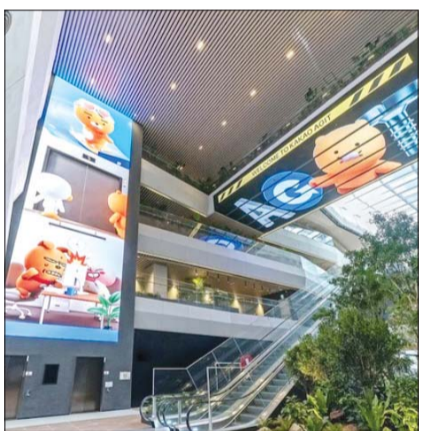
카카오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9214억원, 영업이익은 1305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은 4%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5%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플랫폼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늘어난 94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특비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5073억원을 기록했다.

특비즈 중 비즈보드, 비즈니스 메시지 등 광고형 매출액은 29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늘었다. 특채널을 핵심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도입하는 광고주가 늘어나면서 비즈니스 메시지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선물하기와 톡스토어 등 거래형 매출액은 8% 늘어난 2151억원이다. 커머스 3분기 통합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 측은 “추석 연휴에 선물 라인업을 다각화하고 럭스탭 중심으로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선물 경험을 제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모빌리티·페이 등을 포함한 플랫폼 기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3598억원이다. 다음 등 포털비즈 매출액은 764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 판교 사옥 아지트 전경. /카카오

반면 카카오 사업의 또 다른 축인 콘텐츠 부문의 3분기 매출액은 977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 감소했다. 콘텐츠 부문 내 뮤직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8% 감소한 4709억원을, 스토리 매출액은 218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줄었다.

카카오는 “최근 콘텐츠 부문에서 비핵심 사업을 지속 정리 중이며 이를 통해 핵심 시장에서 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톡 3분기 평균 월 이용자 수(MAU)는 전년 동기 대비 60만 명, 전분기 대비 2000명 증가한 4893만 3000명이다. 국내 기준으로 글로벌 합산하면 5419만8000명이다.

카카오는 내년에 신규 AI 서비스인 ‘카나나’ 뿐만 아니라 AI를 접목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나 기능들을 본격적으로 선보여 이용자와 파트너에게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포스코그룹, 실리콘 음극재 생산체제 구축

연산 550톤 규모 공장 준공식

포스코그룹이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의 완전한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포스코그룹 이차전지소재 사업회사인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이 7일 포항 일만 산업단지에서 연산 550톤 규모 실리콘음극재 공장 상·하공정 종합 준공식을 열었다.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은 올해 4월 포스코 고유기술을 적용해 실리콘 합성물을 코팅하는 하공정 공장을 준공한 이래 7개월만에 산화물계 실리콘을 합성하는 상공정까지 준공했다.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의 상·하공정 종합준공으로 실리콘 합성물의 직접 생산부터 코

팅까지 전 공정을 보유함에 따라 초기 충·방전 효율 향상 등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배터리용 소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소재 총괄은 “실리콘음극재는 포스코그룹이 개발중인 차세대 소재의 한 축이다.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은 오늘 준공된 공장 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음극재는 현재 리튬이온전지에 주로 적용되는 흑연음극재보다 에너지밀도를 4배 가량 높일 수 있어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 및 충전시간 단축이 가능한 차세대 음극재다. 연산 550톤은 전기차 27만 5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양성운 기자 ysw@

‘SK하이닉스 기술 유출’ 中 직원, 징역 선고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0만원 부과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전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대호)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3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서현 기자 seoh@

A씨의 기술 유출은 SK하이닉스가 보안상 USB 등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출력물의 내용, 인쇄자, 사용처 등을 상세하게 기록, 관리하면서 발각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퇴사 전 핵심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과 관련된 A4용지 4000여 장 분량의 자료를 출력했는데, SK하이닉스 측이 대량 인쇄에 대한 이유와 기록을 물었을 때 소명하지 못하면서 꼬리를 뺐다.

중진공-정부조달수출진흥협

중소 해외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와 중소기업 해외추가 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교육장에서 협회와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해외입찰정보, 조달 바이어 네트워크 등 상호 정보교류 및 공동 제공 ▲추진사업 간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진출 애로 발굴과 해소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